**마0306 Note**

**용어: 세례, 침례의 의의**

**◆ 헬라어 원어 단어 의미**

밥티조: 물에 잠그다, 물로 휩쓸다, 완전히 젖게하다, 담그다, 적시다, 착색하다

‘밥티조’라는 어휘는, 씻다(세례)의 의미는 보이지 않고, 연합과 하나로 됨의 의미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호크마 주석에서 살펴본 세례, 침례**

성 경: [마3:6]주제1: [메시야를 위한 두 증언]주제2: [세례 요한의 사역]

▶ 세례를 받더니(\*, 카이 에밥티존토) - 할례(circumcision)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시 세례 행위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세례에 죄에 대한 고백과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부가된 것은 요한에게서 유래한다.

성 경: [마3:11]주제1: [메시야를 위한 두 증언]주제2: [세례 요한의 선포]

한편 여기서 물 세례가 눈에 보이는 죄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신앙 고백적, 공식적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씻음과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유효한 인정의 결과이다.

성 경: [마3:16]주제1: [메시야를 위한 두 증언]주제2: [세례 받으신 예수]

그것은 죄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세례의 참의미를 무시하는 형식주의적 독선이 될 수 있다.

성 경: [마28:19]주제1: [부활하신 예수]주제2: [지상 명령]

▶ 세례를 주고 - 예수께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기는 이곳이 처음이다.

그리고 `이름으로'에서 `...으로'(\*, 에이스)에 관해 몇몇 신약 성경 기자들과는 달리, 마태는 분명히 헬레니스틱 그리스어(Hellenistic Greek)에서 흔히 나타내는 '에이스(엄격히는 `안으로'란 뜻)와 '엔' (\*, 엄격히는 `안에'라는 뜻) 간의 혼동을 피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전치사 `안으로'는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혹은 주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는 행위를 강하게 시사해 준다(Allen, Albrigth and Mann).

성 경: [막1:9]주제1: [종의 출현]주제2: [세례 받으신 예수]

▶ 세례를 받으시고(\*,에밥티스데) - 이 단어의 원형 '세례를 주다'(\*,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그다'(70인역-왕하 5:14; 시 68:23), '물로 씻는다'(7:4;눅 11:38;딛 3:5)등의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단어는 '세례'혹은 '침례'로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물에 잠그다'는 침례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고, 구약 율법의 제사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속죄를 위한 뿌림(레 14:7;16:14,15)등의 관점에서(민 8:7) 정결례로 볼 때는 '물로 씻는다'는 세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 경: [고전12:13]주제1: [은사에 관한 교훈]주제2: [지체의 통일성]

▶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

본절에서 바울은 '하나됨'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바울은 '성령'(\*, 프뉴마)과 세례'(\*, 밥티스마)와 '몸'(\*, 소마)을 하나의 관계로 본다. 즉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 곧 하나된 영적 유기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성 경: [벧전3:21]주제1: [고난에 대한 권면]주제2: [의를 위한 고난]

▶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맘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표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호크마 주석에서는 원어 본래적 의미의 연합(침례)에다가,

원어에서는 나타나지도 않는 ‘씻는다(세례)’의 의미를 인위적으로 삽입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말씀으로 살펴본 침례**

◇하나가 되는(연합되는) 의식으로의 침례를 말하고 있는 말씀들.

고전1002. 그리고 모두가 구름 가운데서와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게로[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침례(잠겨 하나로 됨/ 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았던 형편과,

행1903.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것 속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았느냐? 이에 그들이 말하니라, 요한의 침례 속으로,

롬0603.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 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분의 사망 속으로 침례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롬0604.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 속으로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통해 그분과 함께 매장 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바로 그와 같이 새로워진 생명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갈0327. 이는 그리스도 속으로[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았던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음이라.

골0211. 침례(잠겨 하나로 됨) 안에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의 몸[본체,쏘마: (건강한 총체로서)신체,(육적으로) 종(種),몸,시체]을 벗어버리는 가운데서, 그분 안에서 너희가 손들 없이 행해진 할례로써 또한 할례를 받았으며,

골0212.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역사(에네르게이아:효력,힘,작용,활동,강함,효력있는 작업)의 믿음을 통해, 너희 역시 그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느니라.

고전0617. 그러나 주께 이어 붙여지는 자는 한 영(靈)이니라

고전1213.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거나 이방인들이든, 우리가 노예이거나 자유하든, 한 분 성령에 의해 우리 모두가 한 몸 속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으며, 또 우리 모두는 한 분 성령을 마시게 되어 있음이라.

벧전0321. 그것과 같은 모형(模型)인 바로 그 침례(잠겨 하나로 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육신의 오물을 치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에페로테마:물음,질문)으로] 지금 우리를 또한 구하노니,

엡0405. 한 분 주(主)와,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가 있으며,

◇씻음의 침례로서 말씀하고 있는 듯한 말씀(단 한 개이네요)

행2216. 그리고 이제 어찌하여 네가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 위에서 호소하면서(에피칼레오마이:이름을 붙이다,호소하다,부르다,명명하다) 네 죄들을 씻어내라.

**◆ 그 이름과 침례들/케네스 해긴의 예수의 놀라운 이름 p99에서 발췌**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례를 받아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근거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와 아들의 이름의 권위와 성령의 이름의 권위로 그들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면서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②,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마데튜오:(자동사)학생이 되다,(타동사)제자를 만들다,학자로 등록하다,교훈하다,가르치다,제자가 되다],

행0238.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사면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너희 낱낱의 자는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세례가 세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1.새로운 탄생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세례

2.물로 들어가는 세례

3.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

히0602. 침례(잠겨 하나로 됨)들에 관한 가르침(교훈)의 기초(토대)를, 안수의 기초를, 죽은 자들의 부활의 기초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자.

히브리서에는 세례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엡0404. 너희 부르심의 하나(미아: 하나, 첫째)의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름을 받는 바로 그대로, 하나(헤이스:하나,어느.어떤,풍부히,서로,오직,다른,누군가,또한)의 몸과 한분(헤이스)의 성령이 계시며,

엡0405. 한 분 주(主)와,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가 있으며,

에베소서에는 하나의 세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서와 에베소서 둘다 썼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세례들의 교리 전체를 언급하고 있으며,

에베소서에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한가지 세례, 즉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시키는 세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몸에 가입되는 세례**

세례를 주다 라는 말은, "물에 잠그다, 집어 넣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기고, 집어 넣어진 것입니다.

고전1213.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거나 이방인들이든, 우리가 노예이거나 자유하든, 한 분 성령에 의해 우리 모두가 한 몸 속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으며, 또 우리 모두는 한 분 성령을 마시게 되어 있음이라.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입니다.

고전0617. 그러나 주께 이어 붙여지는 자는 한 영(靈)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갈0327. 이는 그리스도 속으로[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았던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음이라.

갈0328.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으며,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이라.

**물세례**

믿는 자는 새로운 탄생 때 일어난 일의 외부적 증거로써, 물세례를 받습니다.

때문에 물세례 자체가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와 아들의 이름의 권위와 성령의 이름의 권위로 그들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면서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②,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마데튜오:(자동사)학생이 되다,(타동사)제자를 만들다,학자로 등록하다,교훈하다,가르치다,제자가 되다],

**성령세례**

행0105. 이는 요한이 참으로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주었으나, 너희는 지금부터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이라."

이 말씀은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세례의 표징은 방언입니다.

**◆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의 의미**

이는 에덴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 워스는 "내 겉사람보다 내 속사람은 천배는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 우리 아버지께서 내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탄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중요한 연합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에서는 지성소 안에 갇혀 계셨습니다.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에 계시지 않았음으로 최소한 일년에 한번 성전에 자신을 내어 보여야 했습니다.

대 제사장외에는 아무도 지성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 다 이루었다"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하시어서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하신 것은 구약성경이 다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이는 무슨 뜻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의 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이제 하나님은 지성소를 나오셔서 어디에 계시나요? 바로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몸이 지성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고후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일4;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즉 하나님으로 부터 태어났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고,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사탄에게 빼앗긴 권세와 통치를 취하시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다시 넘겨 주시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왕처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전의 에덴에서의 아담과 같이 다시 원상회복시키시었습니다.

우리는 이땅에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 됩니다

우리는 앉아서 권세를 달라고 빌었지만, 우리는 항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력만 가지고는 싸우면 반드시 패합니다.

◇ 내 안에, 네 안에, 포도나무

요1505.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들이니라, 내 안에 머무르며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자,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0653.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육신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안에 아무런 생명이 없느니라.

요0656. 내 육신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또 나는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14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을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느니라. 대신에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일들을 하시느니라.

요1420.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또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1507. 만약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요구할지니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행해지느니라.

요1711.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께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당신 자신의 이름을 통해 지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니이다.

요1721. 그러면 아버지 당신께서 내 안에, 또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들 역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며,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을 것이니이다.

◆결론

밥티조는 씻는다라는 의미의 세례(洗禮)라는 용어보다는

담그다라는 의미의 침례(浸禮)라는 용어가 적합합니다.